"제주 생명수인 지하수 고갈 위기"

한라일보-제주와미래연구원-KCTV-제주교통방송
12일 '물은 제주의 미래다' 정책토론회 업무협약식
내년 5월까지 격주 진행… 도민의식조사도 실시 계획

제주의 생명수이자 미래의 자원인 물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을 연구하고 정책을 제시하기 위한 도민 공론의 장이 마련된다.

한라일보와 제주교통방송, KCTV와 제주와미래연구원은 12일 한라일보사에서 공동 특별기획으로 '제주 대전환 프로젝트1-'물'은 제주의 미래다 정책토론회' 공동 개최를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정책토론회는 오는 19일부터 2022년 5월까지 2주 1회 진행한다. 토론회 이후 지하수 위기에 대한 도민의식조사를 모바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정책토론 예상 주제는 ▷물 부족 ▷물 오염원 ▷삼다수와 물 산업 ▷상하수도 ▷제주 물 위기와 해수 침투 ▷제주 물의 가치와 소중함, 물 문화 등이다.

물 부족을 주제로 한 토론에선 제주 지하수와 도내 물부족 해결의 우선순위 등이 다뤄진다. 또 물 오염원과 관련해선 드림타워에서 하천으로 방류되는 물에 대한 식용 여부, 지하수 오염원 등에 대해 다룬다. 상하수도와 관련해서는 최근 서귀포시에서 잇따라 발견된 서귀포시 유충에 이어 상하수도 요금도 언급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물의 소중함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근본적인 물 문제 해결을 공론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또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의 제주 물 관리 정책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을 수립하도록 유도하며, 궁극적으로 제주를 물 걱정 없는 물의 환경수도로 육성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이용곤 한라일보 사장은 "물의 가치와 중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며 "신문·방송 3사와 물의 중요성을 논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공대인 KCTV 대표이사는 "그간 제주 물에 대해 많은 프로그램을 제작해왔고 도민들의 관심을 모았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되는 정책토론이 더욱 도민들에게 와닿는 계기가 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창우 TBN제주교통방송 사장은 "이대로 물을 계속 퍼올려도 되는가 하는 질문을 했었다"며 "(물에 관한)일은 이제 거부할 수 없다. 이제 응답해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김기성 제주와미래연구원 이사장은 "도민과 후손 모두 물부족 없는 제주에서 살았으면 한다"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강다혜기자

한라일보와 제주와미래연구원, KCTV, 제주교통방송이 12일 제주 지하수 보존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들 기관은 내년 5월까지 2주에 한차례 '물은 제주의 미래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이상국기자

신임 한라일보 대표이사에 김건일

이용곤 대표이사는 고문 위촉

한라일보는 12일자로 신임 대표이사에 김건일(62·사진) 언론중재위원을 선임했다.

신임 김 대표이사는 1987년 제주문화방송에 입사해 보도제작국장, 지역MBC 전략지원단장과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사)아시아기자협회(AJA) 감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이용곤 대표이사 사장은 한라일보 고문으로 위촉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총력전

제주시 통제초소 설치·담당관 지정해 사태 대비

겨울철새 남하 시기가 도래하고, 해외에서 야생조류의 AI 발생이 급증하면서 제주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12일 제주시에 따르면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 4월 6일 마지막 발생 이후 국내에서의 추가 발생이 없는 상태다. 그렇지만 최근 유럽 야생조류의 AI 발생이 전년 동기 40배 증가(8월까지 1237건)하고 발생 유형도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도 3배 증가하는 등 해외에서의 발생이 급증하면서 올겨울 고병원성 AI 유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시는 이에따라 구좌읍 하도리, 한경면 용수리 철새도래지에 통제초소(2개소)를 설치해 축산차량 및 종사자 진입 통제와 낚시활동 및 야생철새 접촉을 금지한다. 또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및 종사자 출입통제 조치와 함께 선제적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내년 2월말까지 매일 철새도래지 소독을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가금거래상인 및 전통시장 살아 있는 닭 유통금지를 포함한 가금농가별 방역담당관을 지정 방역수칙 및 주요 방역상황 홍보 등 맞춤형 관리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가금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생석회와 소독약을 공급해 출입로와 축사 주변 차단방역에 주력할 계획이다.

시 관내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13건(하도 11건, 용수 1건, 외도 1건)이 검출된바 있다.

시 관계자는 "축산차량 운행 시 반드시 철새도래지를 우회하여 통행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로 고병원성 AI 차단방역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윤형기자 yhlee@ihalla.com

법정부담금?… "우린 그런것 몰라"

제주 사립학교 최근 3년 평균 납부율 6.6%… 전국 최하위 수준

제주지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2018~2020)' 자료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부담금 납부율은 2018년 17.4%, 2019년 17.3%, 2020년 16.4%로 3년째 감소 추세를 보였다.

제주지역은 각각 7.9%, 6.2%, 5.9%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2020년 납부율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15개 사립학교 중 0% 초과~10% 미만이 12개교로 가장 많았고, 10% 이상~20% 미만 2개교, 아예 내지 않은 학교는 1개교였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기준 납부율이 10% 미만인 지역은 제주를 비롯해 대구, 전북, 경남, 부산, 강원, 세종 등 7곳이다.

3년간(2018~2020) 평균 법인부담률은 제주가 6.6%로 세종 3.2%에 이어 두번째로 낮았다.

이와관련 권인숙 의원실은 각 교육청에서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 제고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각 교육청이 사학법인의 수익용 재산 규모 및 운영 현황을 자세히 살피고,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재정결함보조금이나 사학기관 경영평가와 연계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정부담금은 교직원의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에 대한 법인전입금으로, 법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부담시 교육청의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충당된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쇠소깍서 바다거북 사체 발견

서귀포시 해안에서 보호종인 바다거북 사체가 발견됐다.

12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3시36분쯤 서귀포시 쇠소깍 해변에 붉은바다거북으로 추정되는 사체가 발견돼 현장 확인 후 효돈동주민센테로 인계됐다.

발견된 거북 사체는 길이 130㎝, 너비 80㎝, 무게 약 100㎏가량으로 발견 당시 오른쪽 앞다리에 굵은 낚시줄에 감겨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귀포해경은 지난 8월 7일 오후 7시38분쯤 서귀포항 동쪽 부두 방파제 인근에서 살아있는 바다거북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구조해 방류했다. 이 거북은 몸길이 90㎝, 너비 70㎝, 무게 80㎏ 정도였다. 백금탁기자

5년간 도내 보건소 간호직 35명 사직

국회 행안위 박재호 의원 분석
코로나 장기화 업무 과중 한 몫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선 보건간호인력의 업무가 과중되면서 일선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의 휴직·사직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 중 휴직·사직자는 2017년 564명에서 2020년 945명으로 67.6% 늘어났다.

올해도 이미 5월 31일 기준으로 591명이 휴직·사직해 작년보다 더욱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017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년간 지역별 현황을 보면 서울이 744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711명, 경남 321명, 경북 302명, 충남 234명이 뒤를 이었다.

제주의 경우 2017년 4명, 2018년 6명, 2019년 5명, 2020년 8명에 이어 올해 5월 31일까지 12명이 휴직 또는 사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속되는 현장 보건인력의 업무 과중으로 공공의료와 보건인력 보강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건소 간호직 현원을 확충하고 코로나19 대응 인력의 처우 개선과 상담, 심리 지원 프로그램 시행 등을 통해 휴직·사직 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다혜기자